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6.11.2~2016.11.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나를바꾸는100일	마가스님	휴(한겨레출판)
2	바람불면 다시오리라-소설 법정	백금남	쌤앤파커스
3	유식으로읽는반야심경	요코야마코이츠/해암	민족사
4	틱낫한기도의힘	틱낫한	불광출판사
5	금강경강의(강미농의)	강미농/양관	담앤북스
6	알기쉬운 쏙쏙 능엄경	도서출판선	현담스님
7	불교에관한사소하지만결정적인물음49	장웅연/니나킴	담앤북스
8	LA유식강의	현담스님	도서출판선
9	금까마귀계수나무위를날고	박부영	불교신문사
10	조당집 읽기-가장 오래된 조사들의 문답	정영식	운주사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불교적 관점서 본 예술과 꿈, 신화

나라는 증상, 삶이라는 환상

김권태 지음 | 민족사 펴냄 | 1만 1천원



이 책은 불교와 한문, 상담심리학을 전공한 현직 교법사로 개념과 이론의 나열이 아닌 실제 저자 자신의 체험들을 성찰하고 소화한 에세이 형식의 글을 묶은 것이다. 주인공은 새로운 마음 분야를 개척하는 김권태 교법사(동국대 부속중학교)이다. '나라는 증상, 삶이라는 환상'이라는 책 제목이 먼저 눈길을 끄는데, 이는 불교의 근본 교의를 나타내는 중요한 용어인 '무상(無常)'과 '무아(無我)'를 현대적 언어로 표현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가며, 고정된 실체가 없다. 따라서 이 삶은 하나의 환상이며, 변하지 않는 무엇, 고정불변의 나(我)가 있을 거라는 착각은 하나의 증상일 뿐임을 책 제목서 암시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환상과 증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책 부제인 '예술, 꿈, 증상, 신화, 그리고 언어에 관한 짧은 시론'서 알 수 있듯 불교적 관점서 예술과 꿈, 신화와 언어에 관한 주제를 심도 있게 분석했다.

총 5부로 구성된 이 책의 1부 '예술, 나라는 말에는 네가 아니라는 말이 숨어 산다'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 존재한다는 연기적 사유를 바탕으로 '텍스트'와 그 속에 감춰진 '진실', 또 예술작품을 구성하는 '은유와 환유', '상징과 알레고리' 등을 풀이하며 예술의 본질을 짚는다. 이어 책의 2부(꿈, 아버지의 꿈으로 프로이트와 융을 만나다), 3부(증상, 목 잘린 인형들의 외침), 4부(신화, 오이디푸스여, 금갑을 쏴라)에서는 불교의 고유한 심층심리학인 유식학을 바탕으로 '꿈'과 '증상', '신화'에 대해 분석한다. 무엇보다 실제 저자 자신이 꾼 꿈과 직접 행했던 상담 사례를 생생히 들어가며 인간의 내밀한 무의식을 하나씩 분석해 나감으로써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게 된다.

사실 '꿈'은 오늘날 정신분석과 분석심리학서 무의식을 분석하는 주요한 과제로 다루지만, 불교서는 그보다 더 깊은 심층심리학인 유식학을 갖고도 아직까지 다른 학문과의 용어적인 유사성과 차이성만을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본격적으로 불교의 유식학을 토대로 깊이 있게 꿈에 대해 분석한다. 마지막 5부 '언어, 혜능 선사가 비트겐슈타인에게'에서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철학과 중국 선불교의 종조라 할 수 있는 혜능 선사의 심법(心法)을 전래동화 〈이야기 주머니〉와 〈석수장이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가며, 불교의 오랜 논리학인 사구백비(四句百非)로써 풀이해 나간다.

불교에서는 언어로 표현된 모든 범주를 네 가지 범부로 나누는데, 이것을 사구라고 한다. 사구백비는 '언어로 된 모든 것(百)을 부정한다(非)'는 의미로 언어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이다. 저자는 이 책서 사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4구로 세상을 포착하되 그것은 참다운 모습이 아니니, 그것을 100비로 씻어냄으로써 직접 진실을 체험하도록 이끄는 것이 사구백비임을 실례를 들어 설명한다.

저자는 머리말을 통해 "예술과 꿈과 증상과 신화와 언어는 모두 삶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진실은 스스로 자기를 드러낼 수 없기에 예술과 꿈과 증상과 신화와 언어를 빌려 입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두는 진실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자 하나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한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현재 유행하는 타학문의 이론을 불교식 언어로 차용해 설명하는 '불교의 세속화'가 아니라, 불교의 핵심교리를 바탕으로 대중들의 관심과 흥미가 집중되는 분야를 분석하고 소화하는 '세속의 불교화'를 꾀한 점이다. 또한 고리타분한 교리 해석의 위험을 피하기

'무상'과 '무아' 현대적으로 해석
세속의 불교화 꾀한 것은 장점
저자, 자신의 연기적 사유 드러내

위해 학술서가 아닌 에세이 형식으로 현대철학의 가장 첨예한 논쟁주제라 할 수 있는 '예술, 꿈, 증상, 신화, 언어'를 분석하고 있는 점도 돋보인다.

저자는 책 속에서 "나라는 말에는/ 네가 아니라는 말이 숨어 산다./(중략)/끝없이 늘어선/백합 같은 구름을 넘겨보며/너라는 말의 정원으로/비밀처럼 나를/만나러 온다. (중략) 그 이름은 자기 아닌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잠시 그 이름을 부여받은 것이며, 내가 아닌 너를 통해 비로소 나라는 의미가 생겨나는 것이다"라고 밝힌다.

이 책은 위의 본문 내용서도 엿볼 수 있듯 저자 자신의 연기적 사유가 무르녹아 있다. 종교가 다르거나 종교를 갖지 않은 일반 독자들도 불교적 가치에 시나브로 젖어들고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시인인 저자 특유의 감성으로 아름답고 대중적인 문체를 사용하여 독자로 하여금 쏙 빠져들게 한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은 서로 떼려야 뗄 수가 없다. 따라서 달은 손가락의 한 부분이며, 손가락은 달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 이 책에는 붓다의 위대한 연기적(緣起的) 사유야말로 증상과 환상에서 벗어나 오롯이 삶의 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오직 한 길, 우리 모두의 길이 된다는 깨달음이 행간 행간마다 배어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수행 방편 높낮이 구별은 분별서 비롯"

영축산에 울린 사자후

일우 스님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 5천원



불교TV 〈붓다의 길을 가다-법화행자〉에서 〈법화경〉 가르침과 참된 신앙생활에 대해 법문해 온 일우 스님이 방송 내용을 정리하고 다듬어 엮은 책이다. 〈법화정법〉과 〈법화신행〉에 이은 〈법화경〉 법문의 결론격에 해당하는 세 번째 책으로, 오로지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법화행자의 길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노예적 삶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스님은 BTN 불교TV서 3년에 걸쳐 부처님 최후 설법인 〈법화경〉 가르침을 펼쳐보였다. 그러면서 이번까지 세 권의 책을 출간했는데, 스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가정'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모여 있는 가정이야말로 행복과 불행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스님이 보기에 대한민국은 현재 부부간, 부모자식 간, 형제간, 친척 간에 서로 상처를 주는 것이 너무 만연해 있다. 따라서 서로의 도리를 지키며 사는 삶이야말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며, 그 핵심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리고 〈법화경〉의 신행생활이 자리하고 있다고 설한다.

스님은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마음의 힘으로 고해(苦海), 고통의 바다를 헤엄쳐 건너 고통서 벗어나는 피안(彼岸), 육지에 오르는 부처님의 지혜를 〈법화경〉으로 이야기한다. 그것이 〈법화정법〉, 그리고 〈법화신행〉에 이은 〈법화행자〉의 삶이다.

〈법화경〉은 〈묘법연화경〉의 약칭이다. 28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에 해당한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마지막에 설하신 이유는 대자대비하심이다. 근기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모든

일우 스님, 불교TV서 〈법화경〉 설법
"행복과 불행의 근원은 가정에 있어"

중생을 깨달음의 세계로 이끄는 큰 길이자 동시에 지름길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중생들에게 법화세계를 보여주어 쉬운 방편을 알려준다.

경전서는 사리불부터 마하가섭존자와 아난존자, 라훌라존자와 오백나한과 유학 무학인들, 심지어 부처님을 해치는 오역죄를 범한 제바달다까지도 부처를 이룬다는 수기를 주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든 중생도 언젠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천명하셨다고 일우 스님은 희망의 근거를 이야기한다.

부처님은 중생들의 근기와 성향이 다 다름을 아시고 평생 동안 팔만사천 가지의 법문을 펼치셨다. 그것을 대기설법이라 한다. 그런데 〈법화경〉서 그 팔만사천 대기법문이 '하나'라고 천명한다.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이 일불승 하나이며, 소승, 대승, 금강승이 일불승 하나라고 말한다. 불제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분별할 소지를 없앤, 최후의 가르침인 것이다. 이에 대해 일우 스님은 "참선, 염불선, 위파사나 남방수행, 금강승 밀교수행 등등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많은 수행법이 있습니다. 수행이 빠르고 늦는 것은 개인의 근기에 따라 다른 것이지 어느 방편이 높고 낮다고 하는 것은 분별입니다"라고 덧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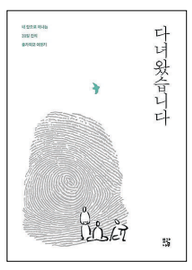
〈법화경〉에서는 비유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대중의 이해를 쉽게 하는데, 특히 '불타는 집(火宅)'의 비유가 잘 알려져 있다. 왜 이 세계는 불타는 집인가? 불은 탈 만한 재료가 있어야 한다. 스님은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독이 화택지옥, 사바세계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며,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공경하고 찬탄하며, 〈법화경〉을 독송하고 사경하고 널리 유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주일 기자

"출가는 스스로 해방되는 길"… 단기 출가학교 30일 수행담

다녀왔습니다

월정사 엮음 | 모과나무 펴냄 | 1만원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꿈꾸며 살지만, 정작 행복해지는 법을 잘 몰랐다. 그래서 처음 출가학교를 선택할 때에도 망설였다. 처음 출가해 수행자 생활을 하면서도 기존의 삶과 달라 힘겨웠고, 그만두고 싶은 심정도 많았다. 하지만 출가학교의 30일 수행 생활은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출가학교 수행자들의 수행담을 담은 이 책은 삶이 바뀐 수행자들의 기록이다.

오대산 월정사 출가학교장 정념 스님은 머리말서 "행복은 힘써 열어내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행복의 문을 열어내기 위한 과정, 그것이 출가학교입니다"라고 의미를 설명하고 "출가는 스스로 해방되는 길"이라고 밝혔다.

출가학교는 자신의 틀 속에 벗어나 행복과 자유를 얻는 과정이었다. 30일간의 출가학교는 수행자들 각각의 삶을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지금까지 약 3천 명에 달하는 인원이 거쳐 갔다. 이 가운데 출가자도 150여 명이나 배출됐다. 참가 연령대도 20대서 60대까지 다양하다. 삶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40대 어느 남성 출가자는 고민 끝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50대의 어느 남성 출가자는 출가학교서 머리를 깎고 나서 자신의 인생을 출가학교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됐다고 한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왔을까?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딘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출가한 사람, 오랜 부부 갈등으로 우울증을 앓았던 사람, 아이의 장애로 힘들어하던 사람 등 저마다 출가의 목적은 달랐지만 출가학교의 수행 프로그램은 서서히 삶을 바뀌게 했다. 모두들 사소하지만 소중한 변화를 가슴에 품고 있다. 출가학교를 마치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출가학교를 마치고 1년, 2년이 지났지만 출가 이전에 힘들어 한 그 문제로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는다. 똑같은 상황에서 받아들이는 넉넉한 품이 달라진 것이다.

삭발과 묵언정진으로 시작하는 출가학교 수행 프로그램은 끝없이 머리를 숙이고 자기 자신의 마음과 행동에 집중하게 했다. 공동체 생활의 엄격한 규율과 정진은 선입견과 아집을 버리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하는 주인공의 삶으로 인도했다. '출가학교'의 일상은 수행이 아닌 것이 없었다. 그것은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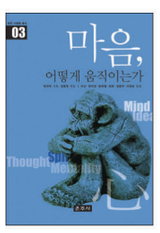
불교와 사회의 상생적 소통을 위한 길잡이! 밝은사람들 총서 1-11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 정준영 외 — 396쪽 | 20,000원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 권석만 외 — 504쪽 | 23,000원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 미산 외 — 400쪽 |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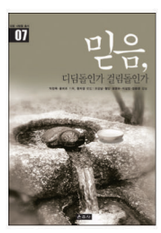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 우희종 외 — 424쪽 | 20,000원



행복, 채움으로 얻는가 비움으로 얻는가 — 미산 외 — 348쪽 | 18,000원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 안성두 외 — 416쪽 | 20,000원



믿음,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 오강남 외 — 300쪽 | 18,000원



괴로움, 어디서 오는가 — 정준영 외 — 326쪽 | 18,000원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 정준영 외 — 388쪽 |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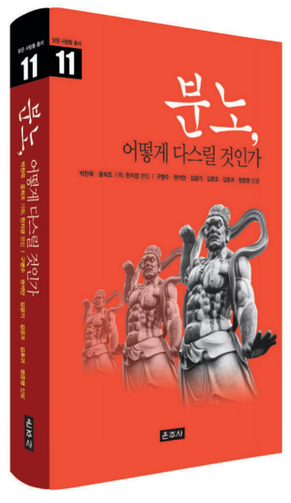
자비, 깨달음의 씨앗인가 열매인가 — 미산 외 — 376쪽 | 20,000원

학술연찬회
주제: 분노,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일시: 11월 19일(토) 10시-18시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분노는 왜 생기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분노사회'에 던져진 현대인! 초기불교 및 선불교, 사회학 및 심리학, 서양의학 및 한의학 등 종교적, 사회과학적, 의학적 측면에서 바라본 분노의 원인과 이에 대한 대처 방법!

분노,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구병수 외 집필/신국판양장/376쪽/2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